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곽병길

겨울답지 않게 따뜻했던 지난 1월 어느 날 부산을 찾았다. 평소 겨울에도 그리 춥지 않은 부산은 봄기운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부산 중앙에 위치한, 멀리 광안대교와 광안리 앞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금련산 중턱에는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자리잡고 있다. 그곳에서 천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곽병길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게 1990년입니다. 군 제대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발령을 받은 곳이 지금 이곳입니다. 천문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그전까지는 사실 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94년 초부터 수련원에서 조금씩 천문에 관심을 가졌고, 망원경 4대를 구입해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천문에 관한 정보가 전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했죠.”

그 이듬해인 1995년에 처음으로 은하축제를 시작했다. 많이 와야 4, 5백 명쯤 올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1천5백 명이 넘게 참여했다. “준비는 부족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클 줄은 미처 생각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됐던 곳에서 망원경 대여가 불가하다고 해서 멀리 대구까지 가서 망원경을 빌려 와야만 했죠. 그렇게 행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 몇 명이 집에 가지 않고 찾아오더군요. 또 와도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문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996년에 하쿠타케 혜성의 출현으로 갑자기 천문 붐이 일기 시작했고, 수련원은 천문대 건설을 추진한다.

별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

“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전국을 찾아 돌아다녔죠. 지금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요 며칠 전 한 기관에서 문의 전화가 왔어요. 천문대를 하나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나마 이렇게 묻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련원이 규모도 커지고 행사도 다양해지면서 많이 바빠졌다고 한다.

“여기 저기 관측 행사를 많이 다닙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망원경 들고 왔다 갔다 해야죠. 행사 내내 있어야 합니다. 식사라고는 컵라면에 김밥으로 대충 때워야 하는 행사이다보니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좋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처음 망원경으로 별을 봤을 때 맨눈으로 보는 것과 별 다른 점이 없이 작게 보이는 별을 왜 보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죠. 그 후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이런 경험은 누구나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행사를 하면서 망원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의 반응이 초보 때 저와 별로 다르지 않으니깐요.”

별은 그저 별일뿐이야

요즘 들어 일반인들의 천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더 하다. 주말에도 학원을 가야하니 여가 활동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과거 하쿠타케 혜성이나 헤일-밥 혜성 출현이 천문 붐을 가져온 것처럼 멋진 혜성이 하나쯤 나타나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하고요. 별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들어 주변에 별을 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거나 몰라서 못 보는 곳을 찾아서 별을 보여주러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얘기를 동아리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부산천문과학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에서 광병길 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천문대를 지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지을 자신이 있습니다. 전시 시설도 그저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99% 이상 체험 시설로 꾸밀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심에 천문대를 지어서 무엇 하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천문대라는 곳이 별을 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별을 좋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이 별에 관심을 갖는 작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별을 잃어버린 어른들은 별을 찾고, 아직 별을 품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별을 가슴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7층 높이 정도로 예상되는 천문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부산의 모습은 밤과 낮 구분 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얘기한다.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시골이어서 정말 하늘이 맑고 좋은 곳이죠. 우주과학캠프 첫 해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했는데,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많이 늘어서 더 좋은 캠프가 될 것입니다.”

여러 행사를 하면서 보람도 크지만 힘든 점도 많다고 한다. 수련원 일을 하고 나서부터 토요일을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가장 힘든 부분이다.

별을 바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남들 쉴 때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집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행사가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언제 들어 오냐고 묻는 게 아니라 오냐 안 오냐를 묻습니다. 항상 마음에 걸리고, 항상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별 보는 것 외에 다른 취미나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 천문과학관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며 웃는 광병길 씨. 그렇게 말하지만 천문과학관이 문을 열면 더 바빠질 것이 뻔히 보인다.

“언제부터가 생각해 보면 취미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모든 게 별과 관련된 일 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열흘정도 차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차 세우고 먹고, 졸리면 발길 닿는 곳 아무 곳이나 묵고 하는 그런 여행 말입니다.”

바쁜 일상 속의 광병길 씨에게 이런 소망은 손에 닿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벅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 여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